

우리 모임에선

한국불교연구 교사 연수회

한국불교연구원 전국교사불자회(회장 김광열 성덕여중교장)는 8월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간 충북 괴산 다보사에서 전국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개최한다.

연수회는 8월6일 오후4시 입재해 오리엔테이션, 동국대 정병조 교수의 강의, 수행실수, 친교시간, 기도정진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며, 접수는 이달 20일 까지 받는다. (02)4311-6167

스카우트지도자 자경문운동

한국스카우트불교지도자회(회장 권영익)는 19일 다보빌딩 15층에서 <초발심자경문> 운동대회를 가졌다. 이날 운동대회는 광명여자중학교 조준형 선생님(교감)이 강술한다. (02)2292-8502

천불동 대구모임 정진

천리안불교동호회 대구모임은 19일 대구구도회 법당에서 정진법회를 연다.

대구모임은 19일 오후 6시 집결해 이틀동안 의상대사 법상계 공부, 영천 거조암 및 팔공산 갖바위 순례, 좌선정진, 회원 상견례, 108배 참회 등의 순으로 정진한다.

회장은 천리안불교동호회에서 만나 20일 오후12시30분 황실호텔에서 화족을 밝히는 천불동 5호 컵 심준엽씨와 은영씨 결혼식장에서 한다. 대구구도회 (053)256-8589

고시촌 도량 연화정사 첫 수계

포교 불모지대에 새 불자 37명 탄생 불교 옹호등 전문지식 사회회향 서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속칭 '고시촌'에 위치한 고시생 기도도량 연화정사(주지 선타). 37명의 고시생들이 6일 오후 3시 '고시촌 포교와 자비평명이 온 세계를 비추길 서원' 하는 결사의 의미로 수계를 받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고시생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연화정사청년회(회장 안태진) 제1회 수계식은 수계자인 고시생은 물론 신림동 지역 불자 70여 명이 10명 남짓한 법당을 가득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봉행됐다.

보통사 정진스님을 계사로 봉행된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사법·행정 고시를 비롯 각종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 37명이 5계를 받고 새 불자로 탄생했다. 더이상 타종교의 전교에 넘겨주고 있을 수 없고, 향후 사

회 지도층불자로 불교권익 옹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여 사인지 시종일관 진지하게 진행됐다.

연화정사청년회 안태진 회장은 "고시인과 학원, 그리고 식당을 셋 바꿔 돌면서 눈뜨자마자 책상에 앉고 책을 보다 쓰러져 자기 일수인 고시생들이 줄에 다니며 신생활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나 다름 없다. 그러나 더이상 '포교 불모지'인 고시촌의 청년불자들을 양치할 수 없어 주지선님과 청년회 회원들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 청년회 서기 이종남씨는 "청년회가 5년, 10년 연륜이 쌓이면 청년회 출신 변호사·검사들이 연화정사청년회 OB모임"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고시촌 포교는 물론 불교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교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관건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연화정사 청년회는 현재 매주 회원들이 십시일반 내는 보시금으로 법사를 초청해 불교기초교리강좌, 생활법문, 참선수행, 경전강좌 등의 법회를 진행해 오고 있다.

주지 선타스님은 "이번 수계식에 새 수계를 받은 불자들이 점차 불교계의 권익옹호와 중흥을 위해 노력하는 불자 법조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02)872-5008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구인사 상월대조사 25주기 열반제

천태종을 중창한 상월 원각 대조사 열반 25주기 추모대회가 10일 천태종 흥보산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열반대제에는 종정 도용스님, 추모위원장 윤덕스님을 비롯한 천태종 스님들과 전국에서 모인 신도들, 고산 조계종 추모위원장, 일공 원용종 종경, 김순길 추모위원장, 성낙승 불교방송 사장, 허문도 불교TV 사장 등 사부대중 3만여명이 동참, 스님의 덕을 기렸다.



제1회 인권문화제 수익금 전달식

제1회 불교인권문화제 수익금 전달식이 10일 조계종포교인회의실에서 청와스님(조계종종회 부의장) 민가별 김정수 상임대회장, 장기수후원회 회장 성관스님, 조계사수배자가족협의회 장재욱회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수익금 1천만원은 불교장기수후원회, 조계사수배협의회, 민간합에 각각 전달됐다.



불심흥법원 흥법바라미제 봉행

재단법인 불심흥법원(이사장 하도명회)은 6일 신창농원에서 하공마지 흥법바라미제를 봉행했다. 제1회 흥법대상 시상식과 청소년 지도자 지원금 전달을 함께 가진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정년스님, 감로사 주지 혜승스님,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을 비롯 3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흥법대상은 이육태, 김형중, 정성진 법사가 수상했고 대한불교청년회, 고등학교불교연합회 등에 1천8백만원이 전달됐다.



전국어린이지도자 경주서 연수

조계종포교인과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가 주최한 제27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가 5일과 6일 총 739명의 어린이지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경주 온천관광호텔에서 열렸다. '슬기로운 어린이, 희망찬 미래불교'를 주제로 여름불교학교 준비를 위해 열린 이번 연수회에서는 제주지역의 그림자 인형극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금강경 독송회 순국영령 천도법회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6일 현충일을 맞아 전국 53개 도시의 각 법당별로 가까운 충혼탑을 찾아 순국영령을 천도하는 <금강경> 독송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서울법당은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탑 앞에서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경 1독과 미륵존여래불 정진을 했다. 금강경독송회는 현충일 행사 외에 93년부터 매년 호국영령들을 위해 하계 천도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한국 세무사불자회 성지순례



한국세무사불자회(회장 정은선)는 6일과 7일 양일간 남해 보리암, 하동 쌍계사, 구례 화엄사 성지순례법회를 개최해 회원과 회원가족 간 친목을 다졌다. 그동안 정기법회를 통해 다져온 회원들의 신심을 향상시키고, 불자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이번 성지순례에는 40여 명의 세무사불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 세무사불자회는 오는 7월 9일 봉은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한국세무사불자회(회장 정은선)는 6일과 7일 양일간 남해 보리암, 하동 쌍계사, 구례 화엄사 성지순례법회를 개최해 회원과 회원가족 간 친목을 다졌다.

그동안 정기법회를 통해 다져온 회원들의 신심을 향상시키고, 불자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이번 성지순례에는 40여 명의 세무사불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 세무사불자회는 오는 7월 9일 봉은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직장법회를 일구는 불자

체육공단 무량회 이완배회장

8년동안 맨투맨 포교 12명 회원 150명으로

91년 12명의 불자를 모아 직장법회를 조직, 8년동안 맨투맨 방식으로 불교를 알리고 목탁치는 법, 염불하는 법, 초와 향을 쬐는 법, 절을 하는 법 등을 가르쳐 1백50여 명의 직장동료를 직장 신행단체를 이끄는 주역으로 단련시킨 체육지도자가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 이완배 회장(53, 올림픽스포츠클럽 센터 관장, 중앙무도연구가)이 그 주인공.

91년 10월 교계에서는 이색적으로 체육계 불자모임을 탄생시켜 눈길을 끌었던 이 회장은 정부기관 내 불자회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타종교인들의 견제와 시기, 심지어

는 상부의 슬한 압력으로 공직생활의 위협을 받았지만 체육인답게 꿋꿋하게 이겨내 주저하며 나서지 못했던 불자 체육인들을 감동케 했다.

故 이기영박사의 애제자이기도 했던 이 회장은 무량회 창립이후 직장법회로서는 드물게 한 주도 빠짐없이 전국 각처의 스님과 법사를 초청해 법문과 강의를 들는 법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또 경쟁사회에서 내가 우선일 수밖에 없는 직장인 불자들에게 이타행을 이끌어내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때문에 무량회 회원들은 모두가 광림사 청각장애인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분기별로 올림픽공원 내 경비원과 청소원들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 회장은 '자자법회'를 도입해 회원들이 불교에 입문한 동기과 소감, 신생활 이야기 등을 나누며 형제자매의 연



올려 타종교 직장동료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출근 전 올림픽회관 내 무량회 법당에 들러 삼배로 아침을 시작하는 이 회장은 "올해는 한국전력남아회, 송파구청불자회 등 송파구 내에 있는 직장직능 신행단체들과 합동법회 및 연대모임을 가질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도필선 기자

각 사암 스님께 드립니다.



윤홍숙 (41세)

윤홍숙 보살은 출가의 뜻이 있어 집을 나가 가족이 에타게 찾고 있습니다. 본인이 출가를 하겠다면 한집안에 출가자가 있다는 것은 크게 복된일이 오니 집안 모두가 환영합니다. 그러나 정리 할 것은 정리하고 형제 모두에게 환영과 축복속에 출가를 바라오니 혹 스님들께서 윤홍숙 보살을 아시면 설득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홍숙 보살님의 출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세간법이 불법이고 불법이 세간법인데 세간을 외면한 불법이란 있을 수 없으니 집에 와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모든 형제와 인연있는 분들의 축하 속의 출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연락처

02-942-1127~8 임응순 02-3480-2184 / 02-956-4014 윤미숙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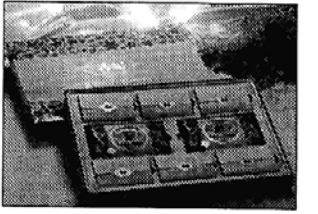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7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원(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약성식품의 성분이 신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체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한인 피로회복제라든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은 생식세포 음식물 과의적체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불순,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할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의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라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불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 회)



매당되는 증상(○) 익히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주기 불규칙성이 있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뒷덜이 결고 딱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쪼는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신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배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고려불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